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반발 매수세 유입되며 상승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에 주가 변동성 확대
삼성전자, 10% 가까이 상승하며 코스피 반등 주도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8,471.02pt (+3.26%)	909.31pt (+2.00%)	1,369.62pt (+3.63%)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543.90 원 (+10.8 원)	4.1710% (0bp)	7,447.50pt (+0.13%)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26,315 억	-3,166 억	-4,975 억
외국인	-46,528 억	-354 억	-22,933 억
기관	+19,094 억	+3,346 억	+27,749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전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1%대에서 +4%대까지 등락을 반복하며 여전히 큰 폭의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시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잔존하는 가운데, 자사주 매입 기대감에 삼성전자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바이오와 2차전지 등 추가 부진이 장기화됐던 업종에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이날 KOSPI는 3.26%, KOSDAQ은 2.00% 올랐습니다. KOSPI 거래대금은 약 53.8조원, KOSDAQ은 약 7.0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를 4.6조원 이상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KOSPI에서 제약과 증권 업종을 매수했고, 전기/전자와 금융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KOSPI를 1.9조원가량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전기/전자와 제약 업종을 매수했고, 금융과 운송 장비/부품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한국 시간 내일 새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대표주가 반등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산업 전시회 '바이오 USA'에서 기술 수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바이오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중국산 로봇 수입 추가 규제 검토에 국내 로봇주가 반사 수혜 기대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전력기기, 기관, 금융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알테오젠(+11.56%), 삼성전자(+9.84%), 레인보우로보틱스(+2.39%)가 올랐고, 효성중공업(-7.27%), NAVER(-1.53%), KB금융(-1.24%)이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항목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